

고용부 - 장애인 표준사업장지원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1 사업 주요내용

- ☐ (사업 목적)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지원
- ☐ (사업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창업비용 및 작업장, 작업장비 구입비 등 지원
 - (지원금 한도 및 조건) (1)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2)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3) 무상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고용계획 제출인원을 전부 고용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법시행규칙 제3조)을 충족하여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함
- ☐ (예산/재원) 28,472백만원('21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표준사업장지원 (일반·자회사형·컨소시엄형· 사회적경제기업형 포함)	27,434	-	27,434 (100%)	28,472	1,038	3.8

□ (추진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 (주요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거나 설립·운영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을 사업주

□ (전달체계)



□ (전년대비 주요 개편사항) 일반, 자회사, 컨소시엄, 사회경제적기업형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대상을 75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 사업장 현황) 2020년 참여 사업장은 총 75개소로 고용서비스 전체 참여 사업장의 1.4%, 기타 유형 전체 참여 사업장의 3.0%

○ (규모별) 참여 사업장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은 86.7%(65개소), 300인 이상 사업장은 1.3%(1개소)로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임

○ (산업별) 참여 사업장 중 서비스업이 56.0%(42개소)로 가장 많고, 제조업 30.7%(23개소) 순으로 나타남

(단위: 개소, %)

	전체	사업장 규모		산업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고용서비스 전체	5,442 (100)	4,968 (91.3)	330 (6.1)	2,163 (39.7)	34 (0.6)	3,071 (56.4)
기타 전체	2,506 (100)	2,168 (86.5)	284 (11.3)	807 (32.2)	24 (1.0)	1,606 (64.1)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75 (100)	65 (86.7)	1 (1.3)	23 (30.7)	0 (0.0)	42 (56.0)

주1: 규모별, 업종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만족도 조사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고용서비스 전체	4.04	4.01	4.13	4.14	4.15	4.18	4.03	4.14	4.06	3.95
기타 전체	4.17	4.14	4.27	4.27	4.30	4.34	4.19	4.28	4.18	4.11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4.59	4.60	4.54	4.50	4.55	4.60	4.40	4.63	4.70	4.53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중요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해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 수립. 표준사업장의 설립 확대에 대한 사항이 포함
 - (국정과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은 국정과제에서 여러 차례 반영됨. 2018년 ‘장애계 관련 주요 국정과제’에서는 장애인 소득보장을 비롯하여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매년 증가(40개~80개)
- (일자리사업 성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근로자수, 중증장애인이수가 전년도(2019년) 대비 증가
 - * 장애인표준사업장: 391개→473개, 21.0%(82개) 증가
 - * 장애인근로자수: 9,349명→11,115명, 18.9%(1,766명) 증가
 - * 중증장애인이수: 7,180명→8,643명, 20.4%(7925명) 증가
 - *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설립 예정[푸르메여주팍(주), (스마트팍)], 2021.3 표준사업장 인증)

- (유형확대) 기존 2개 유형(일반 표준사업장,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하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경제조직 표준사업장으로 유형확대
- (운영의 적절성) 일반표준 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지원금 비율을 6:4로 설정하고 설립 지원하여 목표 달성
- (예산) 2020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집행률은 100%로 보고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자의 경영 및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점이 보도됨
- 제도개선노력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의무기준을 완화(매월 16일 이상 근로에 휴업수당 지급기간을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한시적으로 완화(미이행시 시정명령을 유보 및 시정 이행기간을 연장)
 - (직업재활시설 제외 폐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표준사업장 인증요건을 갖춘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하는 사항을 추진 중
 - (지자체 고용인원으로 인증)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지자체 고용인원으로 인정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
 - (전담인력 확충)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필요하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담당자가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담인력의 확충이 필요
 - (부정수급 예방교육) 전년도 평가에서 제시된 부정수급 예방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 실시